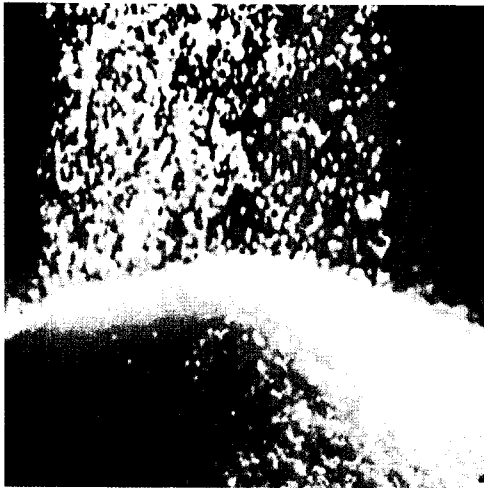


설탕

김승일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설탕과 인류와의 만남



설탕은 식물의 수액, 과일, 꽃, 씨앗, 뿌리 그리고 잎 등의 모든 부분에 함유되어 있다. 인류가 식물로부터 처음 설탕 추출 방법을 미처 알지 못했을 때 이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꿀벌뿐이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인간이 겨우 설탕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6~7세기경부터라고 하니 그 이전의 인류에게 있어 감미료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꿀뿐이었다. 결국 꿀벌이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설탕을 흡수하여 모아 주었던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인간은 설탕이 함유된 식물을 찾아냈

고 거기에서 설탕을 채취해 냈는데 그 가운데에는 감자당(甘蔗糖), 첨채당(甜菜糖, 사탕무당), 야자당(椰子糖), 단풍나무당, 옥수수당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탕수수로 만드는 감자당과 사탕무(Beet라고도 부른다)로 만드는 첨채당이 생산량도 압도적으로 많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를 멸망시킨 뒤 카이발 언덕을 넘어 인도로 들어갔다. 알렉산더군 병사가 인더스강 계곡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사탕수수를 인도인들이 빨아먹는 모습을 보고 대왕에게 이것을 가져다 바쳤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은 이것을 “꿀벌 없이 꿀을 얻을 수 있는 갈대”라고 표현했다 한다. 하지만 당시의 인도에서는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들지는 않았었다.

사탕수수의 원산지는 인도 동쪽의 벵골지방으로 추측되고 있다. 인도인은 6~7세기경 사탕수수를 짜서 채취한 당즙을 조려낸 후 굳히는 일에 성공했고 이것을 상품으로 하여 지중

해의 여러 나라들과 동남아시아, 중국의 여러 지역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사탕수수 재배 역시 페르시아에서 아라비아, 북아프리카 쪽으로 전했다. 물론 이러한 설에 대해 불쾌감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시경』 <대아(大雅), 면(綿)〉에서 ‘동차여태(董荼如飴)’ 라는 말을 들어 이 ‘태(飴)’ 가 바로 맥아당을 만드는 당장(糖漿)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경』에 있는 시가(詩歌)는 서주(西周)에서 춘추시대까지의 사회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에 이미 3천 년 전인 서주시기 때부터 맥아당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세계 최초의 설탕 제조국이 될 것이다.

■ 설탕에 대한 콜럼버스의 탐욕이 빚어낸 참혹상



설탕은 인류에게 있어 비극의 역사를 가져다 준 향신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탕수수의 재배가 십자군 병사들에 의해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특히 재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진 스페인으로 전해졌다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항해 때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사탕수수 묘목을 가져와 에스파뇰라 섬에서 설탕생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시 기대했던 것만큼 향료나 금, 은을 발견하지 못했던 콜럼버스가 노예무역과 설탕생산으로 이익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온화한 기후와 강우량이 풍부한 카리브 해는 사탕수수 재배에 있어 매우 적합했다는 점과 당시 유럽에서 설탕은 금이나 은, 진주에 버금가는 고가품이었기에 에스파뇰라 섬의 설탕생산은 확대를 거듭할 수 있었으며 이윽고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약 2백 개의 제당공장에서 연간 1천 6백 톤이나 되는 설탕을 생산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콜럼버스와 그의 뒤를 이은 스페인 사람들은 가혹한 통치로 원주민인 인디오들을 혹사시켰으며 그 결과로 사실상 인디오들의 전멸이 이어졌고 이런 이유로 원주민들에 의한 사탕수수 생산에는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지배자들은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고 그들은 다름 아닌 아프리카의 노예들이었다. 다시 말해 이때부터 아프리카의 노예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들 노예들은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유럽에서는 17세기 무렵부터 홍차와 커피, 초콜릿 등의 음료가 유행하게 됐고 이에 따라 설탕 수요도 매우 급증했기 때문에 사실상 설탕생산은 카리브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설탕(백색 화물)과 노예(흑색 화물)는 이와 더불어 그 교역량이 늘어갈 수밖에 없었다.

■ 설탕을 지배한 영국

1588년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적들을 중심으로 한 해군들을 내세워 스페인이 세계에 자랑하던 무적함대를 보기 좋게 격파하고 카리브 해와 대서양의 제해권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로 영국은 스페인을 대신하여 카리브 해로 침입하고 설탕생산과 함께 노예무역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때 영국에는 홍차 마시는 풍습이 성행함에 따라 설탕을 영국 최대의 수입품으로 만들었다. 자메이카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설탕농장은 연간 35%에 이르는 높은 이윤을 올렸으므로 농장주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현재의 영국 귀족과 이름 있는 가문 중 당시의 설탕농장 지주가 많은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설탕이 대량으로 소비되기 시작하자 총이나 화약, 술 등을 가득 실은 영국의 선박들은 리버풀을 출항하여 서아프리카로 향했고 대량의 흑인노예들을 서인도제도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탕을 싣고 리버풀로 돌아왔는데 이때의 백색과 흑색에 의한 삼각무역은 19세기 중엽까지 계속되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영국의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본을 형성하게 했고 이를 통해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고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던 끔찍하고 슬픈 인류의 역사가 숨겨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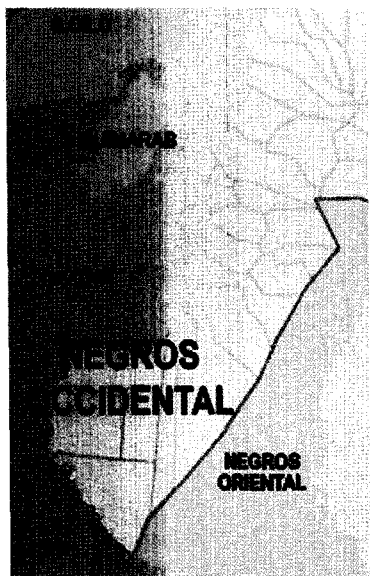
■ 쿠바와 미국의 설탕 싸움

1492년 콜럼버스는 1차 항해 때 쿠바에 도착했는데 그때 그는 “인류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다”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그 후 스페인은 쿠바를 멕시코만 탐험과 정복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고 중요시 했으며 원주민인 인디오를 노동에 동원하면서 가혹하게 박해했다. 그래서 1570년에는 십여 개의 인디오 빈촌만을 볼 수 있었을 뿐 거의가 전멸하게 되었다. 즉 지금의 쿠바인 대부분은 스페인 이주민과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디오들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자 16세기 말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제당산업이나 17세기부터 발전한 담배가 중요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여기에 필요한 많은 노동력을 아프리카의 흑인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세계의 설탕국’이라는 쿠바는 1890년대에 들어설 무렵 생산량의 4분의 3을 미국으로 수출했고 일상 생활용품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미국의 설탕 자본가들은 쿠바에 대한 간섭을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의 내정간섭은 쿠바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에 대해 행해졌다. 그리고 세계공황 당시 쿠바에서는 설탕가격의 하락과 미국의 쿠바산 설탕 수입할당량 축소 때문에 미국자본의 대규모 공장을 제외하고 쿠바인이 경영하는 많은 설탕공장은 파산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쿠바경제의 대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게 되었다. 이후 대미 종속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하는 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탕수수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난 카스트로의 지도로 쿠바혁명(1959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세워지게 된 쿠바혁명정부는 토지개혁과 농업의 다각화, 외국자본의 국유화 등에 주력했으나 미국의 경제봉쇄 등의 방해로 인해 아직도 설탕 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 필리핀 설탕 섬(네그로스 섬)의 딜레마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도 전 세계에서 다섯 명 중 한 명은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기근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필리핀의 네그로스(Negros) 섬 주민들이 만성적 기아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네그로스 섬은 설탕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구 2백1십만 명 가운데 75%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 농장은 소수의 대지주가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6년 '필리핀혁명' 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민중운동 중 독재자였던 마르코스가 추방되고 암살된 아키노 씨의 부인인 크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아키노 대통령의 친정인 코판코 가문은 네그로스 섬에 6천 헥타르의 사탕수수 농장을 소유한 대지주였고 이 때문에 새로운 정권 아래에서도 토지개혁 등의 근본적인 개혁은 단행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건강을 이유로 세계 각 지역 사람들이 설탕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더욱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산량은 증대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설탕의 국제가격은 지난 20여 년간 거의 오르지 않고 있기도 하다. 우리와 같은 설탕 소비국들에게는 '물가를 유지하는 우등생'으로 크게 도움 받고 있지만 이런 여파는 설탕 농장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원래의 설탕산업은 계절적 산업이기 때문에 사탕수수를 수확하는 3~4개월 동안만 노동이 집중되고 나머지 기간은 할 일이 전혀 없으므로 이들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다.